

주간기도정보

2024. 9.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1만여 복음주의 리더들 함께한 제4차 로잔대회 드디어 개막

분열 회개하고 겸손한 협력 요청...“성경의 의와 진리 명확히 말할 때”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축제인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전 세계 202개국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 5천 3백여 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 외에도 5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한국로잔위원회 이사장 이재훈 목사(제4차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사무엘 마펏 선교사님이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에서 ‘작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한국을 통해 극동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것’이라는 꿈을 나눴다. 이 대회가 마펏 선교사님의 믿음과 소망, 사랑, 꿈의 실현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현현이라 믿는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목사는 “케이프타운(2010년 제3차 로잔대회) 이후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 분열됐고, 정치적 갈등, 다툼과 부딪힘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세상에 기도로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겠다는 소망이 있다. 복음으로 인한 변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이 대회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첫째, 초연결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열리는 글로벌 첫 선교대회이기 때문”이라며 “초연결 시대이지만 과거보다 외롭고 소외되고, 정치·문화적으로 양극화됐다. 대위임령 성취를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서도, 이 세대에 무엇이 옳고 의로운지, 성경이 말하는 의와 진리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또 “글로벌 선교 다중심시대에 열리는 첫 번째 선교대회이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기독교 지도가 북반구와 서구에서 남반구와 동방으로 이동하고, 단일방향만이 아닌 다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전략적이며 겸손하게 상호협력적 선교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세대 디지털시대 열릴 첫 번째 선교대회이기 때문”이라며 “자원과 기술을 결집해 협력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소개한 마이클 오 국제로잔 총재(제4차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는 “1974년 랄프 윈터가 미전도종족에 대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촉구했고, 그날로 선교전략과 역사는 바뀌었다. 50년간 9천 개 이상의 미전도 집단이 복음을 들었다”며 “하지만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은 어렵고 미완성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실패’에 대해 끊임 없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총재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독립적이고, 협력할 이유를 느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역은 분열되고 서로 경쟁했고, 재정과 자원을 놓고 다투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비효율적이고 추하게 만들었다”고 회개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악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생각은 복음 전파의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해 오늘날 선포가 어려워졌다. 목소리를 높이고 아름답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전했다.

한편 28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대회 공식 문서인 ‘로잔 서울 선언문’은 대회를 통해 논의되어 대회 마지막 날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기도24365 종합).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린도전서 1:22-24)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하나님, 100여 년 전, 작고 비천한 한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것이라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꿈이 오늘 날 이뤄져 로잔대회를 개최하며 열방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분열과 다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변치않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세상과 타협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서 성령 안에 일치된 마음으로 ‘서울 선언문’을 완성하도록 붙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한 영원토록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며 세상과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예수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채 여물지 않은 벼 흙쳐가...추석에라도 쌀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북한군은 배고픔에 무단이탈했다가 두들겨 맞아...주민들 가슴 ‘철렁’



이달 초 북한 황해남도 벽동군에서 주민들이 채 여물지 않은 벼를 베어 흙쳐가는 사건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만이라도 쌀밥 한 끼 먹고 보자’는 주민들의 절박한 생활고가 반영된 사태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15일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벽동군의 여러 농장에서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않은 벼 이삭들이 잘려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농장들에서는 예년보다 일찍 경비를 조직하고 벼 도둑을 막기 위한 경비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작년 이맘때에는 수확에 임박해 경비를 조직했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확하기도 전에 벼를 모두 도난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비를 훨씬 이른 시점에 조직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우리나라(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는 올벼 재배와 수확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이지만, 추석 명절용 햅쌀(햅쌀)은 농사를 짓는 농장원들에게조차 차려지기(분배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곡창지대에 살면서 추석에 자식들에게 쌀밥 한 끼 먹이고 싶다는 심정으로 아직 여물지 않아 수확 전인 일부 농장의 벼를 훔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초 벽성군의 한 리에서 여물지 않은 벼 이삭을 잘라 달아나다 붙잡힌 주민들은 하나같이 ‘추석에라도 가족들과 쌀밥 한 끼 먹고 싶었다’는 이유를 대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붙잡힌 주민들을 통해 여물지 않은 벼 이삭을 가져다가 흰 쌀처럼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증기로 여물지 않은 벼 이삭을 적당한 시간 동안 찜다가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면 흙 없는 흰 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비법”이라며 “여물지 않은 벼는 쌀알이 잘 부서지는데, 사람들이 온전한 쌀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찾아낸 것을 보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강도 삼수군에 주둔하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배고픔에 무단이탈했다가 붙잡혀 심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권 수립일 특별경비근무 기간인 지난 8일 저녁 20대 남성 군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단이탈해 민가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군인은 수색이 시작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됐고, 주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수색대원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실제 주민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뛰쳐나와 먹을 것을 구걸했겠느냐”, “배고픔을 견디며 군복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등 부대를 무단이탈한 군인을 동정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 내부의 열악한 식량 사정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소식통은 “밀수가 활발했던 이전에는 국경 경비대도 돈을 벌며 군복무 중에 장가갈 준비까지 다 했으나 지금은 밀수도 안 되고 식량이나 물자도 넉넉하지 않아 군인들이 배고픔에 무단이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시편 72:12-1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35,58)

하나님, 곡창지대에 사는 주민조차 쌀 공급이 힘들어 여물지 않은 벼를 훔치며, 배고픔에 군대를 이탈할 만큼 굶주림에 절박한 북한을 돌보사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께서 북한 정권의 강포에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외부의 공급까지 차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성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이 백성을 돌보실 이는 만물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북한에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영혼의 기근을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북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땅을 존귀히 여김 받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요...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 2천 명

장기 미취업자 3명 중 1명꼴...미취업 기간 길어질수록 비중 늘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 8천 명이었다.

취업 안 해요...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 2천 명(34.2%)이었다. 3

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 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 9천 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 5천 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 1천 명) 등의 순이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다.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비중이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점차 하락했다.

여기서 취업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비율 등을 합친 것이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신 청년은 2021년 9만 6천 명에서 2022년 8만 4천 명, 2023년 8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 2천 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만 4천 명), 2019년(6만 4천 명)과 비교하면 절뚝값으로도 여전히 많은 숫자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청년 구직단념자'도 증가하고 있다.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 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8천525명)보다 약 1만 1천여 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 7천 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놴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베드로전서 1:3-4)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18)

하나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단념자가 되고 심지어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여 세상과 자신에 매여 있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를 직면할 은혜를 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이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교회로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께 헌신 된 청년들을 통해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진리의 생명을 열방에까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삼으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